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의 <和漢書分類表> 연구

유 재 아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목 차>

- | | |
|----------------------|-----------------------|
| 1. 서론 | 3.3.2 분류표의 편찬과 특징 |
| 2.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설립 | 4.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和漢書分類表 |
| 3. 和漢書分類表이전의 발전과정 | 4.1 분류표 편찬 |
| 3.1 京都大學附屬圖書館 和漢書分類表 | 4.2 분류표 특징 |
| 3.1.1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의 설립 | 4.3 분류표 형식 |
| 3.1.2 분류표의 편찬과 특징 | 4.3.1 주류구분 |
| 3.2 滿鐵京城圖書館分類表 | 4.3.2 조기성 |
| 3.2.1 滿鐵京城圖書館의 설립 | 4.3.3 주(註)의 설정 |
| 3.2.2 분류표의 편찬과 특징 | 5. 분류표의 주류구분 비교분석 |
| 3.3 朝鮮總督府圖書館 新書部分類表 | 6. 결론 |
| 3.3.1 朝鮮總督府圖書館의 설립 | |

1. 서론

일제는 3.1운동 이후 종래의 강압적 통치 방식을 지양하고 유화적 통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유화적 통치방법으로 언론 및 교육기관을 허용하였고 이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경성제국대학¹⁾은 서울대학교의 전신(前身)으로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관립대학이다. 경성대는 일제 강점기때에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이자 최고의 학부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경성대부속도서관 또한 한국도서관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성대부속도서관의 분류는 언어에 따라 두 개의 분류표를 가지고 있다. 서양서는

1)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은 이후 경성대(京城大)로 약칭함.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s*²⁾을 동양서는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³⁾를 두어 분류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경성대 화한서분류표만을 대상으로 고찰한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분류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분류표일것으로 판단하여 경성대화한서분류표의 영향을 준 분류표와의 영향관계를 위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시대의 근대 분류표를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의 근대도서관 분류표에 대한 역사적인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2.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설립

일제는 통치수단으로 경성대를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대학의 목적이나 이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부속도서관의 설치가 시급하였다.

경성대 부속도서관은 1926년 2월20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이 제정됨으로 같은 해인 5월에 본부 가건물(假建物)내에 개설을 하였다.

1926년 경성대가 설립되었을 당시 의학부와 법학부 2개의 학부를 두었다. 의학부는 1937년 9월 별도의 도서실을 두어 의학 도서를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대 부속도서관의 장서구성은 법문학부 위주의 도서중심으로 수집되었다. 그 후 1938년 이공학부가 설립되면서, 역시 별도의 도서실을 두었으며, 이때 장서는 약 3만 책정도 수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3. 和漢書分類表이전의 발전과정

경성대부속도서관 화한서분류표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화한서분류표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총독부도서관, 만철경성도서관 및 경도대부속도서관의 설립배경

2) 경성대부속도서관 양서분류표(*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는 1934년에 편찬되었는데, 이것은 主類를 LC와 같이 ABC순으로 하여 I 와 O를 제외한 A부터 Z까지 배열하고, 각 主類에서 十進式으로 전개했는데 主類의 배열순이나 그의 전개가 LC의 그것과는 다르다 [鄭駟謀, 文獻分類論, (서울 : 九美貿易, 1991), pp.97-98].

3)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경성대 화한서분류표로 약칭함.

4) 朝鮮學會, 「韓國における 主要圖書館および藏書目錄」 『朝鮮學報』 116집, (丹波市町 : 朝鮮學會, 昭和60(1985)), p.83.

과 그에 따른 분류표의 편찬배경 및 분류표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 분류표의 특성과 상호영향 관계를 밝혀, 경성대부속도서관 화한서분류표의 특성을 조사한다.

3.1 京都大學附屬圖書館 和漢書分類表

3.1.1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의 설립

경도대학(京都大學)은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이어 두 번째로 관립 종합대학이 된 대학으로서 1899(明治32)년에 개설되었다.

경도대학부속도서관은 1897(明治30)년 6월에 경도대학이 창립하였을때 구입도서와 제국도서관의 이관도서의 정리를 착수하였고, 사무실을 이공과대학 교실의 일부에 설치하였으며, 1899년 12월 11일부터 사무실을 개시하였다.

1948년 3월 열람실과 사무실이 신관으로 옮겼고 1954년 새로운 서고가 완성되면서 도서관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⁵⁾

3.1.2 분류표의 편찬과 특징

경도대학부속도서관은 DDC분류를 참고로 하여 화한서분류표와 양서분류표를 편찬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작성시기는 1902년에서 1903년으로 추정하며 현재 경도대학부속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의 기초가 되었다.⁶⁾

경도대학부속도서관의 분류표는 10개 부문으로 크게 분류한 십진분류표로서 각 부문을 강목으로 세분하였고 전체가 1000개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각 부분의 1/2이나 1/3정도를 공란으로 두어 장래의 새로운 분야의 도서에 대한 분류를 남겨두어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동양서 전용의 분류표로서 주류구성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경도대화한서분류표의 주류구분

주류	第1門	第2門	第3門	第4門	第5門	第6門	第7門	第8門	第9門	第10門
주제	宗教哲學 教育	法律 政治	經濟 社會	文學 語學	歷史 地理	自然科學	醫學	工學 藝術	産業	全書 叢書

5) 京都大學附屬圖書館, 『京都大學附屬圖書館要覽』, (京都: 京都大學附屬圖書館, 1958), p.4.

6) 京都大學附屬圖書館, 『京都大學附屬圖書館六十年史』, (京都: 京都大學附屬圖書館, 1961), p.135.

3.2 滿鐵京城圖書館分類表

3.2.1 滿鐵京城圖書館의 설립

만철경성도서관은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를 만철(滿鐵)이 위탁경영하기 시작한 첫해인 1917년의 경영수익금(650,953圓)으로 1920년 7월 21일 경성철도학교(京城鐵道學校)를 설립하고 그 안에 만철경성도서관을 동시에 개관하였다. 처음 장서는 7,000여권에 불과하여 주로 관내에서 열람하는 정도였다.⁷⁾

1943년 12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 행정기구개혁으로 교통국이 설치됨에 따라 교통도서관으로 개칭된 후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다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탄생됨에 따라 교통부 교통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이후 1950년 6.25사변으로 소장 자료가 모두 소실되었다.⁸⁾

3.2.2 분류표의 편찬과 특징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의 편찬자나 편찬시기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개관 했던 당시 연도(1920년)부터 주제별 열람도서통계가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개관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⁹⁾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0에서 9까지 10개의 주류를 가지고 있는 십진식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각 주류는 다시 10개의 목으로 구분된다. 분류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主類)는 한 자리, 강(綱)은 두 자리, 목(目)은 세 자리의 분류기호를 갖고 있다. 이 기재방식은 DDC의 세 자리 기재원칙과 달리, 소수점 없이 전개되며, 따로 보조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의 주류구성을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만철경성도서관 분류표의 주류구분

주류	0	1	2	3	4	5	6	7	8	9
주제	總記	哲學 宗教	教育	文學 語學	歷史 傳記 地誌 旅行	法制 政治 法律 法規 經濟 財政 統計 社會 風俗 習慣 家庭	理學 醫學	工學 航海 兵事	美術 音樂 諸藝 娛樂 運動 競技 武藝	産業 交通 通信

7)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서울 : 철도청, 1999), p.282.

8) 교통도서관, 『交通圖書館』, (서울 : 교통도서관, 1949), p.1.

9) 南滿洲鐵道株式會社京城管理局, 『統計年報』, (京城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20), p.222.

3.3 朝鮮總督府圖書館 新書部分類表

3.3.1 朝鮮總督府圖書館의 설립

조선총독부는 1922년 11월경부터 총독부도서관의 설립을 확정하는 동시에 설립준비를 시작하였고, 1923년 3월 경성부(京城府)내 남대문동 광선문(光宣門)내에 자리 잡았다.¹⁰⁾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설립목적은 조선통치를 위한 사상 선도와 교육의 보급, 조선민족의 문헌수집 및 전국적인 선도교육기관으로 각 지역에 도서관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것에 있었다.¹¹⁾

해방이후 조선총독부도서관은 1945년 8월16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이 도서관을 접수하여 10월15일 국립도서관으로 다시 개관하였으며, 이후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승격되었다.¹²⁾

3.3.2 분류표의 편찬과 특징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작성연도와 작성자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1924년 4월에 이 도서관 사서로 일본으로부터 부임해 온 이마자키(島崎末平)씨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¹³⁾

조선총독부분류표는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로 구성되었고 편찬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인쇄연도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신서부분류표(新書部分類表)는 1929년 3월에, 고서부(古書部) 및 양서분류표(洋書部分類表)는 1931년 7월에 인쇄되었다.

3개로 구성된 조선총독부분류표 중 경성대부속도서관 화한서분류표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신서부분류표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서부분류표는 인문과학 분야에 4개류, 사회과학 분야에 2개류, 순수 및 응용과학분야가 3개류로 구성되었으면, 제10문에 총류의 형식이 배치되어 있다. 분류기호는 경도대 화한서분류표와 같이 아라비아숫자와 부호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한 신서부분류표는 십진식분류표를 갖고 있지만 열한 번째 주류로 조선문(朝鮮門)에 조선 부 만주·몽고서백리아(朝鮮附 滿洲·蒙古西伯利亞)를 두어 이들 국가와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배열하였다. 각 류문에서 십진으로 100단위까지 전개되어 있다.¹⁴⁾

10) 東亞日報. (1924년 9월 21일자, 3면).

11) 金南碩, 『日帝下 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 (대구 : 啓明大出版部, 1991), p.14.

12) 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73), p.238-252.

13) 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73), p.200.

14) 金鎮洙, 『朴奉石의 <朝鮮十進分法>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의 주류구성을 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신서부분류표의 주류구분

주제	第1門	第2門	第3門	第4門	第5門	第6門	第7門	第8門	第9門	第10門	朝鮮門
주류	哲學宗教	教育社會	法律政治	經濟統計	語學文學	歷史地理	理學醫學	工學軍事	産業藝術	全書雜纂	朝鮮附滿洲蒙古西伯利亞

4.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和漢書分類表

4.1 분류표 편찬

일제 강점기 때의 경성대부속도서관은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정된 분류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당시에 표준 분류표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요 도서관에서 사용했던 분류표를 바탕으로 자관에 적합하게 분류표를 수정 편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부속도서관 역시 1926년 설립되어 1945년 패망할 때 까지 약 55만 권에 이르는 장서를 수집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편찬한 분류표를 가지고 장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¹⁵⁾

4.2 분류표 특징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본 분류표인 0000-9900 (28쪽), 逐次刊行物 (製本濟) (2쪽)으로 총3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표상에는 분류표의 편찬 동기나 과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출판사항을 나타내는 표제지와 판권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10개의 주류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기호는 4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만 이루어져 단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기억하거나 배열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미래의 학문의 분화를 대비하여 곳곳에 공기호를 두었다. 축차간행물인 경우는 앞에 알파벳 'Y'와 본표의 아라비아 숫자 앞 두자를 따서 총 3자로 구성되어 있다. 즉 LC분류표와 같이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분류표의 형식은 경성대부속도서관 양서분류표인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s*의 형식과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별도의 보조표나 색인을 갖고 있지 않다.

4.3 분류표 형식

4.3.1 주류구분

경성대화한서분류표의 주류구분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구성된 십진식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1-철학, 2-교육, 3-문학, 4-역사, 5-법률, 6-경제, 7-수학, 8-공학, 9-산업 등의 9류로 대분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총합적인 것과 타 부문에 속할 수 없는 것은 0-일반도서로 두었다. 일반도서는 주류의 처음에 배정하여 십진분류법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인문과학분야에 4개류가 있고, 사회과학 분야에 2개류, 자연과학 분야 3개류가 배정되어 있다. 10개의 주류 중 6개의 주류에 인문, 사회과학분야를 배정하여 이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어 배정하였다.

주제배열에 있어서 과학적인 이론보다는 도서수량과 그 이용가치를 중요시 하여 주류배열의 상위를 결정하고 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분류표에 나타난 주류배정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경성대화한서분류표의 주류구분

주류	0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주제	一般圖書	哲學	教育	文學	歷史	法律	經濟	數學	工學	産業
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4.3.2 조기성

분류표에서 세분하는 방법으로서의 특정 개념은 가능한 동일하게 해서 공통의 기호를 사용하여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호법을 조기법이라고도 한다.¹⁶⁾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체계적인 조기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형식구분, 국어구분, 언어구분, 시대구분, 법률구분, 그 외 축차간행물 분류표에서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다.

1) 형식구분

대부분의 분류표에는 형식구분이 갖추어져 있으며 각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류기호가 있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 또한 각기 형식과 기호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지만 형식구분이 각 주류 내에 마련되어 있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에서 형식구분의 조기성은 <표 5>와 같다.

16) 사공철,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332.

<표 5> 형식구분 조기성

구분	辭書(-2)	叢書(-3)	史傳(-6)	雜書(-9)
1000(哲學)	1002	1003		1009
1100(倫理學)		1103		1109
1200(心理學)		1203	1206	1209
1500(宗教)		1503		
1600(神道)		1603	1610	
1700(佛教)	1702	1703		1709
3000(文學)		3030		
3100(日本文學)		3103	3124	3109
3400(中國文學)		3403	3410	
3500(歐美文學)		3503		3509
4100(日本史)		4103		
6000(經濟)		6003		
7600(醫學)			7606	

<표 5>와 같이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2 사서(辭書), -3 총서(叢書), -6 사전(史傳), -9 잡서(雜書)의 조기성을 갖고 있다. 전 분류표에 걸쳐서 조기성을 유지 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그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6 사전(史傳)은 1600 신도(神道)에서 1606을 사용하지 않고 1610을 사용했고 그 외에 3400-중국문학에서도 3406이 아닌 3410을 사전(史傳)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에서 사전(史傳)은 -6, -10을 혼용해서 조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국어구분

국어구분은 일반 다른 조기성 기호와 동일하게 표의 간소화와 각국의 언어별로 구분하는 각 주제에 동일하게 사용된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기본적으로 분류표 전체에서 -1 일본, -2 한국, -3 중국 순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나라의 조기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일본과 한국, 중국순을 준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국어, 국가구분 조기성

구분	日本(-1)	韓國(-2)	中國(-3)
0100(事彙)	0100	0120	0130
0200(叢書)	0210	0220	0230
0300(隨筆및雜書)	0310	0320	0330
0400(圖書, 書誌學)	0430	0440	0450
2340(東洋美術)	2341	2342	2343
2700(演劇)	2710	2720	2730
4000(歷史)	4100	4200	4300
6300(財政)	6321	6322	6323
6500(社會)	6541	6543	6544
6600(風俗)	6610	6630	6640

위의 <표 6>과 같이, 전반적으로 -1 일본, -2 한국, -3은 중국순 으로 지키려는 조기성이 보이나, 0400-도서, 서지학(圖書, 書誌學), 6500-사회(社會), 6600-풍속(風俗)은 그 분류기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를 지키고 있다.

3) 언어구분

언어구분은 어학류안에서 쓰이는 기호로써 어학류안에 있는 각국의 국어를 표현하는 국어구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 주제나 그 국어를 다룬 형식을 부호화하여 각 국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¹⁷⁾ 언어구분은 -2 자서·사서·어휘(字書·辭書·語彙), -3 문법(文法), -4 성음학·음운(聲音學·音韻), -5 어원(語原), -7 독본·회화(讀本·會話), -8 방언·속어(方言·俗語)의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17) 金鎮洙, 『朴奉石의 <朝鮮十進分類法>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p.50.

<표 7> 언어구분 조기성

구분	-2(字書, 辭書 語彙)	-3(文法)	-4(聲音學, 音韻)	-5(語原)	-7(讀本 會話)	-8(方言 俗語)
3700 (日本語)	3720	3730	3740	3750		3770
3800 (國語)	3820	3830	3840	3850	3870	3880
3910 (中國語)	3912	3913	3914	3916	3917	3918
3920 (英語)	3922	3923		3925	3927	
3930 (獨逸語)	3932	3933			3937	
3940 (佛蘭西語)	3942	3943			3947	

위의 <표 7>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조기성을 유지 하려고 했으나, 3700-일본어에서는 방언, 속어를 3780으로 사용하지 않고 3770을 사용하고 있으며, 3910-중국어에서도 어원을 3915를 사용하지 않고 3916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언어부분의 조기성은 다양하고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4) 시대구분

시대구분은 역사류의 시대구분을 어느 특정주제의 시대구분으로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이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에서 시대구분은 -1 고대, -4 중세, -5 근세 및 현대의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4500-서양사 부분에서는 중세를 4540에 배정하지 않고 4519의 분류기호에 적용하였고, 근세 및 현대는 4550으로 배정하지 않고 4520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시대구분 조기성

구분	-1(古代)	-4(中世)	-5(近世 및 現代)
1020(傳記 및 學說)	1021	1024	1025
1030(古典, 全集)	1031	1034	1035
4500(西洋史)	4510	4519	4520

위의 <표 8>과 같이, 4000의 역사부분에서 서양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따르

지 않고 그 지역에 맞는 시대구분으로 분류항목을 세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류표 전체에서 시대구분의 조기성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최소한의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다.

5) 법률구분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기성기호 종류 외에 경성대화한서분류표에서는 법률부분에 조기성을 보이고 있다. 법률부분에서는 다양한 조기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1 총칙(總則), -8 판결례(判決例)가 각 법률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법률구분 조기성

구분	-1(總則)	-8(判決例)
5300(刑法)	5301	5305
5310(民法)	5311	5318
5330(商法)	5331	5338
5370(國際法)		5380

위의 <표 9>와 같이, 5300-형법 에서 판결례가 5308이 아닌 5305로 사용하였고 5370-국제법에서는 총칙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6) 축차간행물의 조기성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분류표 자체의 특징적인 조기성을 갖고 있다. 따로 분류표를 갖고 있는 축차간행물은 전개방식에서 십진식을 따르지 않고 본 표와의 조기성을 유지한다.

경성대화한분류표에서의 본 표의 유강(類綱) 배정과 축차간행물과의 조기성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유강(類綱)전개와 축차간행물과의 조기성

類綱排列		逐次刊行物(製本濟)	
0000	一般圖書	Y00	一般圖書
0400	圖書·書誌學	Y04	圖書·圖書館·博物館
0700	學會	Y07	學會

1000	哲學	Y10	哲學·倫理·心理·中國哲學
1500	宗教	Y15	宗教
2000	教育	Y20	教育
2100	初等教育	Y21	學校案內
2300	藝術	Y23	藝術
2800	娛樂	Y28	娛樂·運動
3000	文學	Y30	文學
3600	語學	Y36	語學
4000	歷史	Y40	歷史
4600	傳記	Y46	傳記
4700	地誌	Y47	地誌
5000	法律	Y50	法律
5500	政治	Y55	政治·行政
5900	殖民·移民	Y59	殖民
6000	經濟	Y60	經濟
6100	商業	Y61	商業
6200	交通	Y62	交通
6300	財政	Y63	財政
6500	社會	Y65	社會
6800	統計	Y68	統計
7000	數學	Y70	理學·數學
7600	醫學	Y76	醫學
8000	工學	Y80	工學·工業
9000	產業	Y90	產業·農業
9900	軍	Y99	軍事
		YY	新聞

위에 <표 10>과 같이 유강전개에 있어 축차간행물과의 조기성원칙은 거의 동일하게 배정하고 있다. 다만 축차간행물의 항목배열 중 필요에 따라 경성대화한서분류표의 유강

(類綱)에서 더 전개한 목(目)까지 포함시켜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성대화한서분류표의 본 표는 2170-학교안내(學敎案内)를 배정한데 비해 축차간행물은 Y21-학교안내(學敎案内)를 배정하였다. 또한 본 표는 1000-철학, 1100-윤리학, 1200-심리학, 1300-중국철학에 배정하였고, 축차간행물은 Y10-철학, 윤리, 심리, 중국철학을 함께 묶어 배정하였다.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신문은 0800에 조기성을 갖고 있는 Y08에 배열하지 않고 따로 단독으로 YY에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4.3.3 주(註)의 설정

주(註) 혹은 주기 (註記: note)란 표목 이외의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류표의 전개를 생략하고 도서의 분류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분류표가 방대해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¹⁸⁾ 경성대화한서분류표도 필요한 항목에 주를 달아 분류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편리하게 하고 있다. 다음의 예는 경성대화한서분류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주를 나타낸 것이다.

1) 포함주: 어떤 주제가 표목의 일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한다. 사원(寺院)이라함은 종교의 교당(敎堂)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사지(寺誌), 사법(寺法)등도 포함해서 분류함을 나타냈다.

1740 寺院 [寺誌・寺法ヲ含ム]

1344 朱子學 [清朝ノ宋學ヲ含ム]

2) 타 분류번호 지시주: 한 주제의 특정부분이나 또는 관련된 주제를 다른 분류번호에 분류하라고 지시하는 주이다.

3162 謠曲 [能樂及謠方ハ2660ヲ見ヨ]

7600 醫學 [獸醫學ハ9580ヲ見ヨ]

3) 참조주: 자료를 분류할 때 참조가 필요한 경우 참조할 만한 분류번호를 표시하는 주이다.

2060 體育 [2810 參照]

3163 狂言 [2660 參照]

5336 保險法 [6160 參照]

18) 김명옥, 『자료분류법』, (서울 : 구미출판사, 1986), p.65.

4) 상호참조주: 상호참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주로서 “see (~보시오)”로 표시한다.

3700 日本語 [臺灣語ハ3987アイ, ヌ語ハ3994ヲ見ヨ]

3720 辭書・外來語辭書・語彙 [漢日辭典ハ3912ヲ見ヨ]

5) 양자택일주: 한 주제가 분류될 수 있는 곳이 두 장소일 수 있는 것은 그 주제를 양쪽에 설치하여 도서관이나 이용자 성격에 따라 분류를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게 한 주이다¹⁹⁾. 경성대화한서분류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 되어 있다.

0300 隨筆及雜書 [文學ニ關スルモノハ 3240ノ下ニアリ]

예를 들어 0300 수필 및 잡서가 총류에도 있고 문학인 3240에도 수필 및 잡서가 있다. 이러한 경우 0300에서는 문학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의 주가 분류표 옆에 기술되어 있다.

5. 분류표의 주류구분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경성대화한서분류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분류표와 신서부분류표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 및 경도대화한서분류표들의 주류구분을 통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경성대부속도서관에서 장서를 분류하는데 사용한 분류표인 화한서분류표는 당시 서양에서 도입된 십진식분류표의 영향을 받아 10류로 구분하였다. 경성대부속도서관과 비슷한 시기의 십진식분류표인 주요분류표와의 주류구분을 비교한 것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주류 비교

京城大 和漢書分類表		新書部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 分類表		京都大 和漢書分類表	
0000	一般圖書	第1門	哲學·宗教	0	總記	第1門	宗教哲學教育
1000	哲學	第2門	教育·社會	1	哲學, 宗教	第2門	法律 政治
2000	教育	第3門	法律·政治	2	教育	第3門	經濟 社會
3000	文學	第4門	經濟·統計	3	文學, 語學	第4門	文學 語學

19) 김명옥, 『자료분류법』, (서울 : 구미출판사, 1986), pp.66-68.

4000	歷史	第5門	語學·文學	4	歷史, 傳記, 地誌, 旅行	第5門	歷史 地理
5000	法律	第6門	歷史·地理	5	法制, 政治, 法律, 法規, 經濟, 財政, 統計, 社會, 風俗, 習慣, 家庭	第6門	自然科學
6000	經濟	第7門	理學·醫學	6	理學, 醫學	第7門	醫學
7000	數學	第8門	工學·軍事	7	工學, 兵事	第8門	工學 藝術
8000	工學	第9門	産業·藝術	8	美術, 音樂, 諸藝, 娛樂, 運動, 遊戲, 武藝	第9門	産業
9000	産業	第10門	全書·雜纂	9	産業, 交通, 通信	第10門	全書 叢書
		朝鮮門	朝鮮 附 滿洲·蒙古·西伯利亞				

위의 <표 11>과 같이 주요분류표의 주류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 분류표 모두 십진식분류표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만 신서부분류표는 맨 뒤에 별도의 조선문을 두고 있다. 둘째, 네 분류표가 열개의 주류 중 철학, 문학, 역사, 법률, 경제, 공학, 산업의 7개의 주류가 완전히 일치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동일한 주제로 나타났다. 셋째, 네 분류표의 큰 차이점은 경성대화한서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총류가 맨 처음에 구성되어 있으나, 신서부분류표와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뒷 부분에 위치한다. 넷째, 분류기호의 형식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4자리의 아라비아숫자를, 만철경성도서관은 1자리의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신서부분류표와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 일반도서류(0000) 부분

경성대화한서분류표의 일반도서류부분은 일반적인 분류표인 총류에 해당된다. 총류는 형식류로서 그 특성은 형식적이고 아주 일반적이며, 많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 주제에 분류할 수 없는 유(類)이며, 전체적 성격을 갖는 류이다. 즉 모든 학문분야와 관련되거나 어느 한 학문 분야에 분류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의 문헌들을 분류하는 유이다.²⁰⁾ 일반도서류에서 경성대화한서분류표와 주요 분류표의 비교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2>와 같다.

20) 오동근, 『KDC의 이해』, (대구 : 태일사, 2002), p.113.

<표 12> 일반도서류(0000) 비교

京城大 和漢書分類表		新書部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 分類表		京都大 和漢書分類表	
0000	一般圖書	10-00	ア全書 イ叢書	00	總記	10-00	百科全書
0100	事彙	10-10	書目	01	書目·解題	10-10	叢書 (日本)
0200	叢書	10-20	官報	02	事彙·類書	10-20	同 (中國)
0300	隨筆及雜書	10-30	ア學會 イ俱樂部	03	叢書	10-30	類書 拔萃(日本)
0400	圖書·書誌學	10-40		04	隨筆·雜書	10-40	同 (中國)
0500	圖書館	10-50		05	雜誌	10-50	隨筆 (日本)
0600	博物館	10-60		06	新聞	10-60	同 (中國)
0700	學會	10-70		07	朝鮮(含滿蒙)	10-70	雜誌 (日本)
0800	新聞及雜誌	10-80		08	幼年用圖書	10-80	同 (中國)
0900		10-90		09		10-90	新聞 (日本)
						10-10	學術總合刊行物

위의 <표 12>와 같이, 일반도서류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성대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일반 분류표와 마찬가지로 총류의 의미인 일반도서류부분을 주류 배열에 맨 앞에 배정하며 신서부분류표와 경도대분류표는 맨 뒤쪽에 배정되어 있다. 또한 다른 주제에 비해 네 분류표 모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정한 주제에 분류할 수 없는 주류이기 때문에 각기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항목을 배정했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항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경성대분류표,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와 경도대분류표는 총서(叢書)-수필(隨筆) 2군데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서부분류표는 경성대분류표와 학회(學會)라는 한 개의 항목과 경도대분류표와 전서(全書)라는 부분에서만 일치 하였으며,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와는 완전 일치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서목(書目)이라는 항목에서 일치하고 있다. 특히 다른 분류표들을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경도대분류표는 11개로 구성하여 맨 뒷부분인 10-10에 학술총합간행물(學術總合刊行物)을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2) 철학류(1000) 부분

철학은“자연과 사회, 인간 존재의 보편적 원리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러한 철학의 주제들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와 보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화적, 사상사적 상황에 따른 특성도 갖고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¹⁾

철학류부분에서는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1000-철학, 신서부분류표는 제1문-철학·종교,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1-철학, 종교,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제1문-종교, 철학, 교육을 주류에 배정하고 있다. 분류기호의 자리수나 형식은 차이가 있지만 네 분류표 모두 철학부분에 '1'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철학류(1000) 비교

京城大 和漢書分類表		新書部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 分類表		京都大 和漢書分類表	
1000	哲學	1-00	哲學	10	哲學	1-00	宗教哲學教育總記
1100	倫理學	1-10	心理學	11	心理學	1-10	
1200	心理學	1-20	倫理學	12	倫理學	1-20	佛教總記
1300	支那哲學			13	論理學及美學		
1400	諸子	1-40	東洋哲學	14	東洋哲學	1-40	哲學總記
1500	宗教	1-50	宗教	15	宗教	1-50	教育總記
1600	神道	1-60	神道	16	神道	1-60	中國哲學總記
1700	佛教	1-70	佛教	17	佛教	1-70	
1800	宗派	1-80	基督教	18	基督教	1-80	日本思想總記
1900	基督教	1-90	道教	19	雜教	1-90	

위의 <표 13>과 같이 철학부분은, 경도대화한서분류표외의 세 분류표 모두 철학-윤리학-심리학-종교-신도-불교-기독교순으로 7개의 항목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특히 신서부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철학부터 기독교까지 8개의 항목이 일치하여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서부분류표는 1-90에 도교를 배정하였고,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19에 잡가를 배정한 점이 다른 점으로 나타났다. 신서부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중국철학과 제자를 강단계의 아래인 동양철학에 배정했으나,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강 단계에 중국철학과 제자를 두어 비중 있게 배정하였고, 경도대화한서분류표 역시 강 단계에 중국철학을 배정하였다.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다른 세 분류표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은 없으며 철학과 불교라는 2개의 항목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철학이라는 부분에서 경성대

21) 오동근, 『KDC의 이해』, (대구 : 태일사, 2002), p.125.

화한서분류표와 일치하며, 특히 다른 분류표와 크게 다른 점은 철학부분에 교육이 배정된 점과 분류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철학부분에서는 경도대화한서분류표외에 세 분류표가 순서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3) 문학류(3000) 부분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그들 상호간의 의사, 사상을 소통하게 되었다. 이 의사와 사상의 교환을 위한 매개체로서 언어는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문학은 언어를 매개한 사상과 의사를 표명하고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문학과 어학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²²⁾

문학류 부분에서는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3000-문학, 신서부분류표는 제5문-어학·문학,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3-문학 어학,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제4문-문학 어학을 주류에 배정하고 있다.

신서부분류표는 어학을 먼저 배정한 반면, 경성대화한서분류표,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문학을 먼저 배정하였는데 이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문학류(3000) 비교

京城大 和漢書分類表		新書部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 分類表		京都大 和漢書分類表	
3000	文學	5-00	語學	30	文學	4-00	文學總記
3100	國文學	5-10	國語	31	國文學	4-10	修辭學 雄辯法
3200	物語·日記 紀行·隨筆	5-20	東洋諸文學	32	支那文學	4-20	國文學總記
3300	朝鮮文學	5-30	文學	33	外國文學	4-30	物語 草紙 日記
3400	支那文學	5-40	國文學	34	語學一般	4-40	中世近世小説
3500	歐米文學	5-50	室町時代小説	35	國語	4-50	外國文學史
3600	語學	5-60	韻文學	36	漢語(支那語)	4-60	言語學總記
3700	國語	5-70	支那文學	37	英語		
3800	朝鮮語	5-80	外國文學	38	其他各國語	4-80	英語
3900	滿洲語	5-90	ア少年圖書等 イ童謡·童話 ウ少年理科書	39	演說·論說·速記		

22) W. C. B Sayers.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9th ed. London, Grafton, 1954, p.213

위의 <표 14>와 같이 문학부분에서는 네 분류표 모두 문학-국문학-외국문학 순으로 전개해 나갔다. 어학부분은 경도대화한서분류표 외에 세 분류표가 전반적으로 어학-국어(일본어)-동양권언어는 비슷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어학-국어(일본어)-조선어-만주어 순이었고 신서부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어학-국어(일본어)-동양권언어순으로 전개하고 있다.

신서부분류표에서는 만주어를 조선문의 부록에서 다루고 있어서 따로 어학쪽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어학부분에서 영어라는 항목만이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와 일치한다.

4) 역사류(4000) 부분

역사류는“인간이 경험한 과거 전체, 또는 그러한 인간의 제반 행위를 탐구하고 구성하는”것이 역사류이다. 아울러 이 유는 역사와 더불어 지리와 전기도 함께 다루고 있다.²³⁾

역사류에서는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4000-역사, 신서부분류표는 제6문-역사·지리,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4-역사, 전기, 지지, 여행,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제5문-역사 지리를 주류에 배정하였는데 이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5>와 같다.

<표 15> 역사류(4000) 비교

京城大 和漢書分類表		新書部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 分類表		京都大 和漢書分類表	
4000	歴史	6-00	歴史	40	歴史	5-00	歴史地理總記
4100	日本史	6-10		41	萬國史	5-10	安土桃山時代
4200	朝鮮史	6-20	國史	42	東洋史		
4300	支那史	6-30	風俗史	43	國史		
4400	地域史	6-40	東洋史	44	西洋史	5-40	東洋史總記
4500	西洋史	6-50	西洋史	45	傳記·人名辭書		
4600	傳記	6-60	皇室	46	地誌·旅行	5-60	傳記叢傳
4700	地誌	6-70	地理	47	萬國地誌		
4800	アジア洲	6-80	本邦地理	48	本邦地誌	5-80	地理總記
4900	ヨーロッパ	6-90	亞細亞地理	49	外國地誌		

23) 오동근, 『KDC의 이해』, (대구 : 태일사, 2002), p.251.

위의 <표 15>와 같이 역사류에서 네 분류표가 모두 일치하는 항목은 없지만, 경도대화한서분류표의 세 분류표는 역사-일본사-동양사-서양사순으로 비슷하게 전개했다. 신서부분류표,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우리나라역사 항목을 강에서 단독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학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 경성대화한서분류표가 다른 분류표보다 우리나라를 비중있게 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부분에서도 세 분류표 모두 일본지리-아시아지리-서양지리순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신서부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서양지리를 강 단계에 따로 부여하지 않고 제6문(6-90)-아세아지리(亞細亞地理) 아래와 49-외국지리(外國地誌) 아래에 각각 서양지리를 세분하여 전개했다.

5) 법률류(5000) 부분

법률부분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 행정과 함께 구성을 하는 사회과학류로서 인간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과학이다.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5000-법률, 신서부분류표는 제3문-법률·정치,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5-법제, 정치, 법률, 법규, 경제, 재정, 통계, 사회, 풍속, 습관, 가정,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제2문-법률 정치를 주류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6>과 같다.

<표 16> 법률류(5000) 비교

京城大 和漢書分類表		新書部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 分類表		京都大 和漢書分類表	
5000	法律	3-00	法律	50	法制	2-00	法律總記
5100	法制史	3-10	刑法	51	政治		
5200	國法學	3-20	民法	52	法律	2-20	國法學
5300	刑法	3-30	商法	53	法規·法典	2-30	議院總記
5400		3-40	裁判所構成法 ·陪審法	54	經濟	2-40	政治學
5500	政治	3-50	國際公法	55	財政		
5600	議院	3-60	政治	56	統計		
5700	外交	3-70	議院·議會史	57	社會		
5800	行政	3-80	行政	58	風俗·習慣		
5900	植民·移民	3-90	外交	59	家庭		

위의 <표 16>과 같이, 네 분류표가 모두 일치하는 항목은 법률-정치 2개의 항목만이 일치한다. 특히 경성대화한서분류표와 신서부분류표는 법률부분에서 순서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법률-형법-정치-외교-행정인 5개의 항목에서 일치하여 다른 분류표에 비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분류표는 사회학이 법률부분과 분리되어 있으나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법률과 사회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수하류(7000) 부분

수하류는 순수과학류로서 물건을 헤아리거나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수(數)·양(量)에 관한 학문이다. 따라서 수하류에서는 순수과학뿐만아니라 기술과학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수하류부분에서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7000-수학, 신서부분류표의 제7문-이학·의학,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6-이학, 의학,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제6문-자연과학을 주류에 배정하고 있다. 이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7>과 같다.

<표 17> 수하류(7000) 비교

京城大 和漢書分類表		新書部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 分類表		京都大 和漢書分類表	
7000	數學	7-00	理學	60	理學	6-00	科學總記
7100	理學	7-10	和漢算法	61	物理, 化學		
7200	物理學	7-20	理化學	62	天文, 地文學	6-20	博物總記
7300	天文學 附曆	7-30	化學	63	博物學		
7400	博物學	7-40	天文學	64	數學	6-40	數學總記
7500		7-50	博物學	65	醫學		
7600	醫學	7-60	醫學	66	基礎醫學		
7700	衛生學	7-70	治療學·物理療法	67	臨床醫學		
7800	內科	7-80	レントゲン學	68	法醫學		
7900	皮膚病科	7-90	衛生	69	獸醫學		

위의 <표 17>과 같이, 네 분류표가 모두 일치하는 항목은 박물학 1개이며 경도대화한서분류표외의 세 분류표가 일치하는 항목은 이학·천문학·박물학·의학으로서 4군데에서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의학부분을 기초의학·임상의학·법의학·수의학등으로 다른분류표에 비해 더 세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공란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는 기술과학부분에서는 장래의 새로운 분야의 도서

에 분류를 남겨 두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된다.

7) 공학류(8000) 부분

공학류부분은 기술과학류로서 “기술 과학으로 자연 과학에서 발견된 진리를 응용해서 어느 특정한 생산 기술의 개발이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이다.

공학류부분에서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8000-공학, 신서부분류표는 제8문-공학·군사,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7-공학, 병사,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제8문-공학 예술을 주류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8>과 같다.

<표 18> 공학류(8000) 비교

京城大 和漢書分類表		新書部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 分類表		京都大 和漢書分類表	
8000	工學	8-00	工學	70	工學	8-00	工藝總記
8100	土木工學	8-10		71	土木工學	8-10	航空工學
8200	建築學	8-20	土木工學	72	機械工學	8-20	軍事總記
8300	機械工學. 航空機	8-30	建築學	73	電氣工學		
8400	電氣工學	8-40	機械工學	74	建築	8-40	美術總記 同史
8500	鑛山學·採鑛學·冶金學	8-50	電氣工學	75	鑛業	8-50	金石
8600	航海術	8-60	鑛山學	76	造船學	8-60	音樂(東洋)
8700	工業	8-70	軍事	77	航海	8-70	スポーツ 體操
8800	化學工學	8-80		78	兵事	8-80	方技總記
8900	手工業(機械工學)	8-90		79			

위의 <표 18>과 같이, 공학류 부분에서는 네 분류표가 모두 일치하는 항목은 없다. 하지만 경도대화한서분류표외에 세 분류표는 공학부분에서 다른 주제에 비해 유사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으나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단 세 분류표가 공학-토목공학-건축학-기계공학-전기공학 순으로 전개했다. 신서부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강 단계 이하가 세분되어 상세히 전개되어 있는 반면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거의 강 단계만 전개되어 있을 뿐 그 아래로 더 이상 전개되어 있지 않다.

8) 산업류(9000) 부분

산업류부분에서는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9000-산업, 신서부분류표는 제9문-산업·예

술,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9-산업, 교통, 통신,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제9문-산업을 주류에 배정하고 있다. 산업류부분 또한 철학류와 마찬가지로 네 분류표 모두 '9'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의 <표 19>과 같다.

<표 19> 산업류(9000) 비교

京城大 和漢書分類表		新書部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 分類表		京都大 和漢書分類表	
9000	産業	9-00	産業	90	産業	9-00	産業總記
9100	農業	9-10	農業	91	農業		
9200	園藝	9-20	園藝	92	園藝	9-20	農業總記
9300	造園(庭園及公園)	9-30	畜産	93	林業		
9400	林業	9-40	工業·工藝	94	牧畜·養禽	9-40	運輸交通總記
9500	畜産(附養禽· 養蜂等)	9-50	機械工學	95	水産·漁業		
9600	養蠶	9-60	化學工學	96	蠶業	9-60	商業總記
9700	水産	9-70	藝術	97	工業		
9800		9-80	音樂	98	商業		
9900	軍事	9-90	演劇 歌舞技	99	交通·鐵道·通信		

위의 <표 19>과 같이, 산업류부분에서는 네 분류표가 산업-농업부분에서 2개가 일치하며, 경도대화한서분류표외의 세 분류표는 산업-농업-원예인 3개의 부분에서 유사하게 전개했다. 공학부분에서와 같이 신서부분류표나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강 단계이하가 상세히 전개되어 있는 반면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거의 강 단계만 전개되어 있을 뿐 그 아래로 더 이상 전개하지 않았다. 특히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철도라는 주제를 주류배정에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철도도서관이라는 특수성에 고려하여 99-교통·철도·통신부분에 비중을 두어 세분 하고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대학인 경성대부속도서관의 설립배경을 조사하였으며, 경성대부속도서관에서 사용한 화한서분류표와, 화한서분류표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분류표,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 경도대

화한서분류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대는 1924년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관립대학이며, 그 지원기관으로 설립된 도서관은 1926년 설립되었다.

둘째, 경성대부속도서관에서 사용하였던 화한서분류표의 특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동양서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분류표로써 편찬자와 편찬연도, 편찬배경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1926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십진식분류법으로 도서수량과 그 이용가치를 더 중요시 여겨 주류배열의 상위를 결정하여 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2) 경성대화한서분류표의 주류구분은 10개의 주류 중 6개가 인문 사회과학분야에 배정함으로서 자연과학보다 인문사회과학에 비중을 두었다.
- 3) 경성대화한서분류표는 다양한 형태의 조기성과 주(註)를 적용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의 분류표이므로 색인이나 보조표는 따로 갖고 있지 않다.

셋째, 신서부분류표,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 경도대화한서분류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1902년에서 1903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DDC 를 근거로 하여 십진식분류법을 사용하였다.
 - 2)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1920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십진식분류표를 사용하였으나 편찬자나 편찬배경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는다.
 - 3) 신서부분류표는 1924년 島崎末平씨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한다. 십진식분류법을 사용하였으며, 가장 큰 특징은 열한번째 조선문(朝鮮門)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넷째, 경성대화한서분류표와 영향관계에 있는 신서부분류표,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 경도대화한서분류표와의 주류구분을 비교분석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네 분류표 모두가 십진식분류법을 사용하며, 주류구분은 10개의 주류 중 7개의 주류가 일치하거나 동일한 주제로 나타났다. 분류기호에서는 경성대화한서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였고 신서부분류표와 경도대화한서분류표는 아라비아숫자와 문자를 함께 사용하였다.
- 2) 주류를 구성하는 각 주제를 살펴보면, 경도대화한서분류표외의 세분류표는 전 주제에 걸쳐 유사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 철학부분이 10개의 항목 중 7개의 항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일반도서부분은 다른 주제에 비해 차이점이 많았다. 그 밖에 주제들은 경도대화한서분류표외의 세 분류표가 유사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결과, 경성대화한서분류표의 분석을 통해 근대 대학도서관의 분류사를

정립할 수 있었고, 또한 주요도서관분류표와의 상호영향관계를 통해 한국의 근대 분류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和漢書分類表, 京城 :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19--)
2. 朝鮮總督府圖書館, 新書部分類目錄, 東京 : 朝鮮總督府圖書館, 昭和12(1937)
3. 鐵道圖書館, 藏書目錄, 朝鮮(龍山) : 鐵道圖書館, 昭和4(1929)
4. 鐵道圖書館, 鐵道圖書館藏書目錄, 京城 : 鐵道圖書館, 大正4(1925)
5. 京都帝國大學附屬圖書館, 京都帝國大學附屬圖書館和漢圖書分類目錄, 京都 : 京都帝國大學附屬圖書館, 昭和13-17(1938-42)
6. 鄭駟謀, 『文獻分類論』, 서울 : 九美貿易, 1991.
7. 京都大學附屬圖書館, 『京都大學附屬圖書館要覽』, 京都 : 京都大學附屬圖書館, 1958
8. 京都大學附屬圖書館, 『京都大學附屬圖書館六十年史』, 京都 : 京都大學附屬圖書館, 1961
9. 朝鮮學會, 「韓國における 主要圖書館および藏書目錄」 『朝鮮學報』 116집, 丹波市町 : 朝鮮學會, 昭和60(1985)
10. 여지숙, 일제강점기 한국도서관의 문헌분류표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5
11.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서울 : 철도청, 1999
12. 교통도서관, 『交通圖書館』, 서울 : 교통도서관, 1949
13. 南滿洲鐵道株式會社京城管理局, 『統計年報』, 京城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20
14. 東亞日報, (1924년 9월 21일자, 3면)
15. 金南碩, 『日帝下 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 대구 : 啓明大出版部, 1991
16. 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73
17. 金鎮洙, 「朴奉石의 <朝鮮十進分法>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18. 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50년사 : 1946-1996』, 서울 : 서울대학교, 1996
19. 사공철,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20. 김명옥, 『자료분류법』, 서울 : 구미출판사, 1986

21. 오동근, 『KDC의 이해』, 대구 : 태일사, 2002
22. W. C. B Sayers.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9th ed. London, Grafton, 1954